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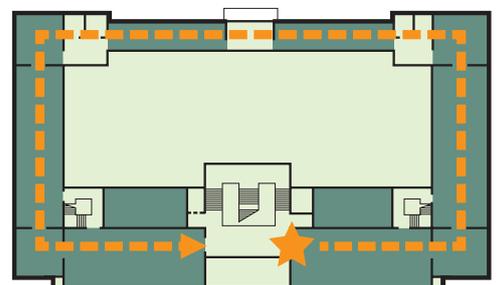


일본미술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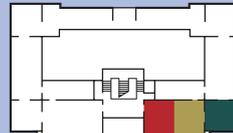
도쿄국립미술관 ‘일본미술의 흐름’ 전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본미술의 흐름을 시대순으로 조망하는 이 전시를 통해 여러분은 일본 문화의 특징이나 역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1층에서는 일본미술을 장르별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개의 전시실을 관람하시면, 1만 2천년 전의 조몬시대(縄文時代)부터 19세기 후반의 에도시대(江戸時代) 말기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문화와 미술의 흐름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문화의 흐름을 세계문화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 일본, 중국, 한국의 연표를 마지막 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팸플릿에 실린 작품 중에 보존상의 이유로 다른 작품으로 대체되어 전시실에서 보실 수 없는 작품도 있습니다.

본관(일본 갤러리)
2층



시작



일본미술의 새벽 조몬·야요이·고훈

일본미술의 시작은 조몬시대와 야요이시대(彌生時代)의 토기나 토우(土偶: 조몬시대의 흙인형), 청동방울(銅鐸: 야요이시대의 의식에서 사용했던 청동으로 만든 종), 하니와(埴輪: 고분에 넣었던 흙을 구워 만든 안이 빈 인형), 거울(야요이시대와 고훈시대(古墳時代)에 권력의 상징으로 사용됨) 등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 조몬토기 (불꽃 모양 토기)

조몬시대 기원전 3000년~2000년 조몬토기라는 명칭은 이 시대의 토기에서 많이 보이는 새끼줄무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왼쪽 작품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 고대인들의 기량은 세계 어느 선사시대의 작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뛰어난 솜씨를 지녔습니다.



◀ 토우(흙인형)
조몬시대 기원전 1000~4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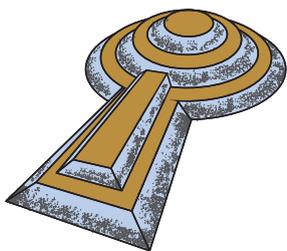
▶ 청동방울

야요이시대 1~3세기 청동방울은 원래는 작은 종이였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례적 성격이 강해져 점차 크기가 커졌습니다. 도판으로 실은 청동방울의 높이는 135cm입니다.



▶ 하니와: 갓옷 입은 무인
고훈시대 6세기

흙을 구워 인물이나 동물, 집, 무기 등을 표현한 하니와는 매장 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며 대형 분묘(고분)에 놓여 있었습니다.



▶ 고분에는 원형 고분, 사각형 고분 외에도 전방이 직사각형 모양인 고분과 사다리꼴을 연결한 특수한 형태의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 등이 있습니다.

불교의 융성 아스카·나라

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약 2500년 전에 인도에서 시작되어 아시아 전체에 전파된 종교입니다. 일본에 불교가 정식으로 전해진 것은 6세기 중반 무렵입니다. 고대의 기록에 따르면 한반도의 백제왕조가 불상이나 경전 등을 전해주고 불교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불교를 받아들인 것은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불교미술품을 도래인(渡來人)에게 제작시키거나 그들 스스로가 모방, 또는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사원 건축과 글씨, 회화의 기법 등도 전해져 이러한 불교의 영향은 그 후 수백 년 동안 일본미술의 흐름 속에서 계승되어 왔습니다.



▶ 보살 좌상

아스카시대 7세기 일본에 불교가 전해진지 얼마 되지 않아 일본에서 제작된 불상 중 하나입니다. 당시 한반도에서 유행했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 1 [1]

실 1 [2]

실 2

국보실

일본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우수한 예술작품을 중요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뛰어나고 문화사적으로도

의의가 큰 작품을 국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는 메이지시대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1949년에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조 건축물인 호류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벽화가 불타버린 사건을 계기로 1950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 하공장보살

헤이안시대 12세기 헤이안시대에는 호화로우며 우아하고 아름다운 불화가 많이 그려졌습니다. 이 작품은 그 대표작으로 은박과 금박을 많이 사용한 섬세한 표현은 일본 불화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석기

—기원전 1만1천년 무렵

조몬

—전5세기 무렵

야요이

—3세기 무렵

고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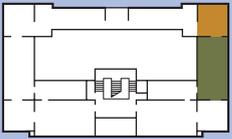
—7세기 무렵

아스카

—710

나라

—794



불교미술과 공정미술

불교미술 헤이안~무로마치

9세기가 되면 의식과 구전을 중시하는 밀교가 일본에 전해집니다. 이로 인해 밀교미술이 탄생하여 불교미술은 다양한 양식으로 전개됩니다. 사찰과 신사의 유래나 기적(奇蹟)을 그린 연기화(緣起畫)는 이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문화 및 미술의 영향을 받았던 일본미술이 서서히 모방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미의식을 형성했습니다.

공정미술 헤이안~무로마치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92년) 초기의 공정 문화는 중국의 문화를 모범으로 하였습니다. 문학과 미술에서 일본의 미의식이 개화하기 시작한 것은 헤이안시대 중기부터입니다. 귀족들의 생활에서 글씨와 와카(和歌: 일본 고유의 정형시)는 같고 닦아야 하는 중요한 교양이었습니다. 헤이안시대 초기에 제작된 글씨 작품은 중국 양식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점차 쇠퇴하여 일본 양식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에마키(繪卷: 두루마리 그림)도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됩니다.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 등의 소설과 와카는 공예품의 도안 주제로서 애용되었습니다.

선(禪)과 수묵화 가마쿠라~무로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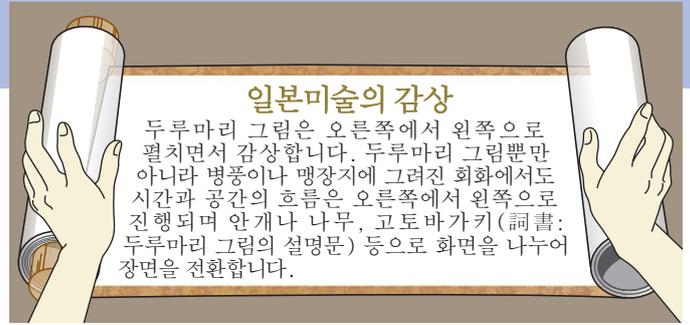
무사가 처음으로 정권을 잡았던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 1185~1333년)에 선종이 전해졌습니다. 선의 가르침과 함께 수묵화(산수화)와 같은 새로운 중국문화가 일본에 유입되었습니다. 산수화에는 선승들이 사는 곳이나 찾아야 하는 이상향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수묵은 빛이나 공간의 원근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재료로서 불화에도 그 형식이나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중국회화의 화풍은 일본회화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일본 선종사원의 회화는 이러한 중국회화의 영향을 받아 수묵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대인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 1392~1573년)에는 수묵화의 인기가 선종의 영역을 넘어 일본회화의 한 장르를 형성하였습니다.



◀ 소나무 아래의 달마

찬: 잇산 이치네이

가마쿠라시대 14세기
여타 불교 종파가 화려하게 채색된 불화를 숭배한 것처럼, 선종(禪宗)의 승려들은 그들의 시조인 달마(達磨) 그림을 숭배하였습니다.



일본미술의 감상

두루마리 그림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펼쳐면서 감상합니다. 두루마리 그림뿐만 아니라 병풍이나 맹장지에 그려진 회화에서도 시간과 공간의 흐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며 안개나 나무, 고토바가키(詞書: 두루마리 그림의 설명문) 등으로 화면을 나누어 장면을 전환합니다.

◀ 마키에 나전 수레바퀴무늬 손케
헤이안시대 12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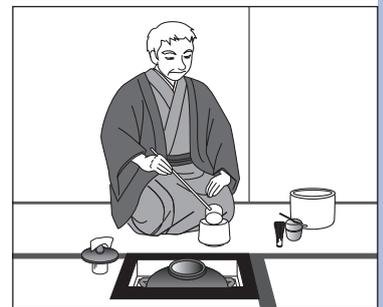
이 손케는 헤이안시대 후기에 제작된 공예품의 금자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명품으로 귀족들의 우아하고 호화로운 생활의 단면을 전해줍니다. 나전과 마키에(蒔繪: 금, 은가루로 칠기 표면에 무늬를 넣은 일본 특유의 공예)로 흐르는 물 위에 바퀴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는 경전을 넣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3 [1] [2] 실

4 실

다도(茶道) 미술

족자가 걸린 도쿄노마(床間: 일본 건축에서 다다미방의 정면에 바닥을 한 층 높여 만들어 놓은 곳)와 다다미를 깔 전시 공간은 일본의 전통적인 다실 공간을 재현한 것입니다. 다도는 12세기 후반 중국에서 선종과 함께 전해져 무사계급을 시작으로 사회 전체에 널리 퍼졌습니다. 무로마치시대에는 경제력을 갖춘 다이묘(大名: 봉건시대의 영주)가 외국에서 수입한 고가의 차도구로 다도를 즐겼습니다. 한편, 검소한 차도구로 다도를 즐기는 스타일도 등장했는데, 센노 리큐(千利休, 1521~1591년)가 그러한 다도 양식을 완성했습니다. 일본 특유의 미의식을 뜻하는 '와비'와 '사비' (한적(閑寂)과 고담(枯淡)의 정취)은 다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찻잔의 불균등한 형태나 손에 닿는 감촉에서 그러한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차도구로는 다양한 물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중국이나 한국의 차도구 작품 중에는 다도를 위해 제작된 것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쓰이던 도구였던 것도 있습니다. 소유자의 취향이나 차모임의 주제에 따라 차도구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연출한 차모임(茶會)은 그 한때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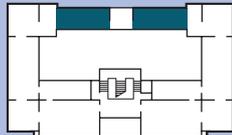
▶ 다실 덴고안(轉合庵)

에도시대

독립된 작은 건물인 차실(茶室)이 센노 리큐에 의해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덴고안은 유명한 차인(茶人)이었던 고보리 엔슈(小堀遠州, 1579~1647년)가 교토에 세웠던 건물인데, 도쿄 국립박물관으로 옮겨져 지금은 본관의 북쪽 정원에 있습니다. 본관 15실과 16실 사이에 있는 라운지에서 보이는 건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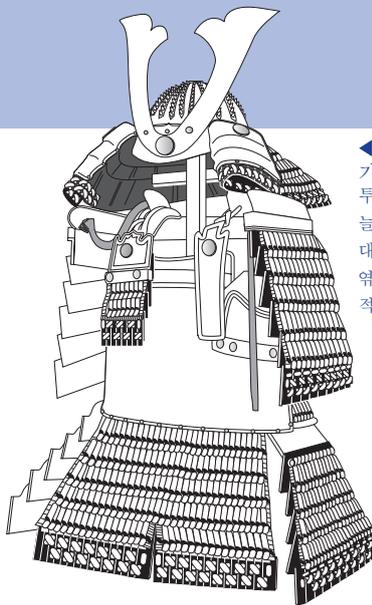


헤이안	가마쿠라	난보쿠초	무로마치	아즈치 모모야마	에도
1192	1333	1392	1573	1603	1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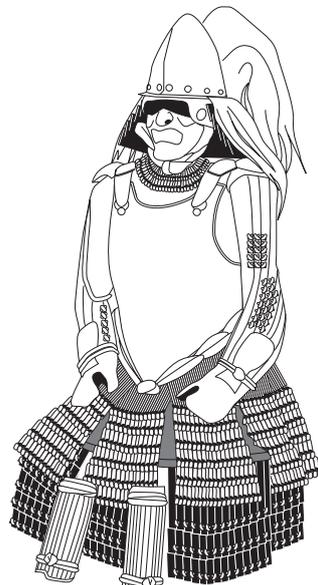
무사의 옷차림 헤이안~에도

사무라이(侍)란 원래 '섭기는 자' 라는 의미인데 헤이안시대에는 귀족보다 하층계급이었지만, 점차 권력을 얻어 결국에는 군사정권인 막부(幕府)를 열었습니다. 사무라이가 권력을 쥔 가마쿠라시대와 무로마치시대에는 천황의 실권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무로마치 막부의 힘이 약해지자 교토에서는 오닌의 난(應仁の亂, 1467~1477년)이 일어나 수도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영주들은 패권을 다투는 전쟁을 계속하여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장식적인 무기나 무구는 호화로운 차림새로 여겨졌고 전장에서 쓰러진 사무라이는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한 자로서 칭송되었습니다.



▶ 갑옷과 투구

가마쿠라시대 14세기 투구와 어깨가리개, 구사즈리(갑옷의 몸통 아래로 늘어 허리부분을 보호하는 것)를 크게 만든 대형갑옷입니다. 가죽이나 작은 철판을 비단끈으로 엮어서 만든 구조의 갑옷으로 말을 달리며 활을 쏘기에 적합합니다.



▶ 국보 새메무늬 효고구사리 다치(群鳥文兵庫鎖太刀)

가마쿠라시대 13세기

다치(太刀)란 끈이나 사슬로 묶어서 허리에 차는 도검을 말합니다. 효고구사리 다치는 헤이안시대 말부터 가마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공가(公家: 조정에서 출사하는 벼슬아치)와 무사 가문에서 선호된 다치의 일종인데, 나중에는 사찰과 신사의 봉납품이 되었습니다.

실

5 & 6

유력한 다이묘였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년)가 죽은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1598년)가 일본을 통일하여 다이코(太閤: 섭정(攝政)이나 태정(太政) 대신의 높임말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컬을 때가 많다)가 되었습니다. 그 후, 1600년에 일어난 세키가하라 전투(關原戰鬪)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1543~1616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뒤를 이은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 1560~1600년)를 물리치고 일본을 다시 통일하여 에도(江戸: 지금의 도쿄)에 도쿠가와 막부를 엽니다.

도쿠가와 막부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에도시대(1603~1868년)가 지속되는 동안 다이묘와 사회를 엄격히 관리하는 정책을 유지합니다. 사무라이의 규칙에 따라 칼집은 검은 물건으로 여겨져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한편, 장식적인 칼은 선물이나 실내를 장식하는 개인 감상품으로서 제작되었습니다.



▶ 다이쇼 주철 금머무늬칼집 다치

아즈치모모야마시대 16세기

다치와 다르게 반대쪽에 날이 서 있는 가타나(刀)는 하카마(袴: 길에 입는 일본의 하의) 등의 허리띠 차는 칼입니다. 무사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인 도검은 다치와 고시가타나(腰刀: 허리에 차는 작은 칼) 또는 가타나와 와키자시(脇差: 허리에 차는 작은 칼)와 같이 길고 짧은 두 자루의 칼을 허리에 차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실내에서는 와키자시나 단도(短刀)만을 찼습니다. 두 자루의 칼을 합쳐서 다이쇼(大小)라고 부릅니다. 이 다이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용한 것입니다.

▶ 남만 구소쿠 갑옷

아즈치모모야마시대 16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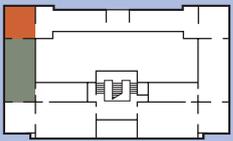
16세기에 서양에서 총이 전해지자 전쟁의 형태도 창이나 총을 사용하는 집단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옷도 서양 갑옷의 영향을 받아 철판으로 만든 동부(胴部)에 투구나 손등과 팔을 보호하는 도시, 경갑(脛甲: 정강이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무기(武具)를 더한 것을 세트(鎧)로 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국보 헤이지 모노가타리 두루마리 그림: 로쿠하라 행차 중에서 '무사의 모습'

가마쿠라시대 13세기

전쟁 장면을 그린 두루마리 그림에 등장하는 무사의 모습입니다. 당시의 무사가 어떤 투구와 갑옷을 착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박물관 내에 있는 오료관(應舉館) 실내의 모습입니다. 맹장지에는 마루야마 오료(圓山應舉)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병풍과 맹장지 그림 아즈치모모야마·에도

병풍과 맹장지 그림은 사계절의 식물이나 새, 풍경, 인물, 이야기의 한 장면 등을 그려서 실내를 장식한 그림입니다. 근세(1573~1868년)에 들어서면, 무사들의 취향을 반영한 장엄한 건축이 조영되고 실내를 선명한 색과 금박을 이용한 그림이나 힘있는 필치의 수묵화로 장식하게 됩니다. 무사들의 취향에 맞는 가노파(狩野派)의 그림이나 왕조미술의 전통을 계승한 도사파(土佐派)의 그림, 에도시대 후기에는 서민들의 미의식을 반영한 자유롭고 사실적인 스타일의 그림도 등장합니다.



▲ 요시와라 유곽과 연극 풍경 두루마리 그림의 일부
히사카와 모로노부
에도시대 17세기

에도의 유곽 요시와라(吉原)에서 연회를 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림 안쪽에는 병풍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병풍은 규칙적으로 접어서 감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세워서 방안 공간을 나누거나 장식하기 위해 사용된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미술품입니다.

7^실

생활용품 아즈치모모야마·에도

오다 노부나가가가 세운 아즈치성(安土城)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운 모모야마성(桃山城)에서 이름을 딴 아즈치모모야마 시대(安土桃山時代, 1573~1603년)에는 국제무역과 교류가 번성하여 상인들은 풍부한 재력을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전란 없이 평화가 이어진 에도시대를 거치는 동안 상인들은 엄청난 경제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장인들을 고용하여 도자기나 호화로운 옷, 가구, 금속공예, 문학작품을 모티브로 한 벼루상자 등 뛰어난 칠공예품을 제작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에는 상인들의 취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 마키에 담쟁이덩굴
오솔길무늬 서안과 벼룻집
다쓰케 조베에
에도시대 17세기
벼룻집 안에는 벼루와 연적, 붓이 들어 있습니다. 상자 전면은 화려한 마키에(금은가루를 칠기 표면에 무늬를 놓는 일본 특유의 공예)와 나전으로 장식했습니다.



8^실_[1]

8^실_[2]

서화(書畵)의 전개 아즈치모모야마·에도

회화

장식적인 회화와 풍속화의 융성은 아즈치모모야마시대에 두드러지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영주들은 화려한 색채나 금박을 입힌 화면, 과장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대담한 화풍의 병풍이나 맹장지 그림을 즐겨 감상했습니다.

사람들은 내세보다 현세의 생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풍속화는 독자적인 분야로 발전하였으며 서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연중행사를 즐기는 장면을 표현한 풍속화가 그려졌습니다.

에도시대는 오랜 기간에 걸쳐 평화가 지속되고 경제도 발전을 거듭하여 문화가 성숙한 시대입니다. 그 결과, 다양한 회화 양식이 탄생했습니다. 막부의 전속화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가노파(狩野派)의 일부가 에도막부의 초대 쇼군(將軍: 막부의 최고 권력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함께 에도로 이주하여 '에도 가노파'를 확립했습니다. 여전히 문화의 중심지였던 교토에서는 다와라야 소타쓰(俵屋宗達, 에도시대 초기 활동)에 의해 새로운 회화 양식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식의 회화는 후에 '린파(琳派)'라고 불리며 공예 등 다양한 예술 양식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외에 사실적인 표현을 특징으로 하는 교토의 마루야마파(丸山派)나 중국의 명나라(明, 1368~1644년)의 회화에 영향을 받은 문인화 양식도 있습니다.

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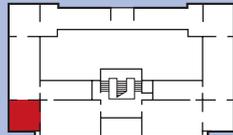
에도시대에는 헤이안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일본 양식인 와요(和樣)와 중국 양식인 가라요(唐樣)라는 크게 두 종류의 글씨 양식이 있었습니다. 와요는 궁정과 막부에서 사용되고 마침내 데라코야(寺子屋: 서민들의 사설교육기관)를 통해 서민들에게도 널리 퍼졌습니다.

가라요는 선승(禪僧)들이 즐겨 쓰던 양식입니다. 일본에 건너온 중국의 선승들의 글씨에서 자극을 받고, 도쿠가와 막부의 유학장려책에 의해 한자문화가 대단히 번성하여 가라요도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양식을 중시하는 와요와는 달리 가라요는 쓰는 사람의 사고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시인과 지식인들은 그 점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가라요는 에도시대 중기부터 후기에 크게 성행했습니다.

▼ 다양한 양식의 '풍(風)' 자



헤이안	가마쿠라	난보쿠초	무로마치	아즈치 모모야마	에도
1192	1333	1392	1573	1603	1868



노(能)와 가부키(歌舞伎)

14세기에 시작된 노(能: 일본의 전통 무대 가면극)는 무악(舞樂)에서 발전한 예능으로 막부로부터 두터운 후원을 받았습니다. 에도시대의 노는 의식(儀式)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예능으로 발전했습니다. 배우이면서 각본가이기도 한 칸아미(觀阿彌, 1333~1384년)와 그의 아들인 세아미(世阿彌, 1363~1443년)는 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배우는 무사나 승려, 여성, 유령 등의 역할을 나타내는 가면을 쓰고 양식화된 상징적인 가타(型)에 따라 천천히 움직입니다. 각본의 발전과 함께 노의 의상도 점차 세련되고 정교해졌습니다. 배우는 역할의 성격을 나타내는 한 세트의 의상(기쓰케(着付: 하의), 우와기(上着: 상의), 하카마(袴: 바지))를 입었습니다. 근세의 염직(染織)에서 주된 것은 염색이었지만, 무늬를 실로 짜는 기법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사계급 사이에 노가 성행했을 무렵 노 의상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대단히 높았고 다양한 염직기법을 사용한 다수의 노 의상이 제작되었습니다. 교겐(狂言)은 노를 상연하는 중간에 삽입된 단막극(풍자극)으로 가부키(歌舞伎)의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부키는 17세기 초에 교토에서 '이즈모노 오키니(出雲阿國)'라는 여인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막부의 눈에 띄어 여자 역도 성인 남자만이 연기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습니다. 가부키는 춤이나 대담한 동작, 음악 등이 특징적입니다. 소설가 지카마쓰 몬자에몬(近松門左衛門, 1653~1724년)에 의해 복잡한 스토리가 탄생했습니다. 노 의상이 중세의 옷차림인 것에 반해, 가부키는 에도시대 서민들의 복장을 바탕으로 합니다. 배우들이 무대에서 입는 전위적이고 현란한 색상의 가부키 의상이 에도시대 일반 여성들의 패션을 선도했습니다.



◀노 가면(能面): 고오모테(小面)
에도시대 17~19세기

노 가면은 무악 가면에 비해 작고 얇게 제작되어 얼굴 전체를 덮지는 않습니다. 젊은 여성을 표현한 고오모테(小面)는 오키나 가면(翁面: 노인), 조가면(尉面: 노인), 오니 가면(鬼面), 오토코 가면(男面), 온나 가면(女面)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노 가면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입니다.



▶무악 가면(舞樂面): 지큐(地久)
가마쿠라시대 13세기

무악은 중국대륙에 기원을 둔 일본의 궁중무용인데 노(能)는 이 무악에 바탕을 둡니다. '지큐(地久)'라고 불리는 이 노 가면은 천장지구(天長地久: 하늘과 땅처럼 오래 가고 변함이 없음)를 이르는 말)를 축복하는 곡에서 사용합니다.



▼금색 바탕 소나무와 돛뭉치 가라오리(唐織)
에도시대 18세기

주로 여성용 의상으로 사용되는 '가라오리(唐織)'는 풍부한 색채의 염직을 특징으로 합니다. 에도시대 후기에는 교토에서 고도의 염직 기술이 개발되어 영주들은 모두 호화로운 노의상을 주문했습니다.



◀가부키 그림 병풍
히사카와 모토노부

에도시대 17세기 중요문화재

에도(지금의 도쿄)에 있었던 극장인 나카무라좌의 17세기 말 무렵의 모습입니다. 가부키의 무대는 노 무대의 형식을 계승하였으며, 관객들이 지붕이 없는 잔디 위에서 관람했기 때문에 시바이(芝居)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사지키(棧敷: 특별석)가 그려져 있으며 밖에는 상연 목록을 적은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구석기

—기원전 1만1천년 무렵

조몬

—전5세기 무렵

야요이

—3세기 무렵

고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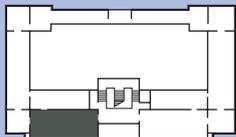
—7세기 무렵

아스카

—710

나라

—794



우키요에와 의상 에도시대의 패션과 디자인

고소테(小袖: 소매부리가 좁은 평상복 기모노)는 무로마치시대 중기 이후에 급속히 인기를 얻은 옷입니다. 모모야마시대에 이르러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고소테를 입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무렵, 몇 가지의 새로운 장식기법이 탄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홀치기 염색에 붓으로 채색을 하고 금은박을 입히는 쓰지가하나(辻が花) 염색과 자수와 금은박을 병용하는 누이하쿠(縫箔)가 성행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법을 기초로 하여 에도시대에는 많은 종류의 장식기법이 등장했습니다.

에도시대 중기에는 염색법이 더욱 발전하여 풀로 방염을 하여 색을 내고 섬세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색채의 무늬를 염색하는 유젠조메(友禪染)가 탄생합니다. 이 기술은 일본의 근세 염직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염색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지리엔 바탕**
꽃·단풍·바구니무늬 고소테
에도시대 18세기

소매를 좁게 낸 기모노를 고소테라고 합니다. 유행이 변화하면서 디자인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모티브나 색조, 자수 등에서 '이키(세련되고 운치 있음)'라고 불리는 에도의 미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연두색 지리엔 바탕**
소나무·단풍·모란·호르는 물·공작무늬 후리소테
에도시대 19세기

소매가 길게 늘어진 옷을 후리소테(振袖)라고 합니다. 회화와 같은 디자인이나 여백을 중시한 다양한 디자인 등이 탄생했는데 무늬의 배치에도 여러모로 궁리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패션에 민감했던 에도의 여성들은 이러한 후리소테를 입고 스스로를 아름답고 품위있게 나타냈습니다.

▼ **비녀** 에도시대

비녀는 머리 장식 중 하나입니다. 오동나무꽃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비녀는 꽃비녀이며 국화꽃을 모티브로 한 또 하나의 비녀는 머리 부분이 평평하고 얇은 평타잡(平打簪)이라 불립니다. 이 밖에도 사술에 조그만 장식을 단 비라비라 비녀, 다양한 장치를 부착한 가와리 비녀 등이 있습니다.



사미센을 든 게이샤 그림의 부분 ▲ 기타가와 히데마로

에도시대 19세기

에도시대에는 머리에 꽂는 비녀나 빗, 마게(鬘: 기혼 여자의 등글게 틀어 올린 머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고가이(笄)가 여성의 장신구로 정자리 잡았습니다. 그 소재나 형태, 디자인, 꽂는 법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새로운 유행이 탄생했고 여성의 패션에서 빠뜨릴 수 없는 장신구가 되었습니다.



우키요에와 사람들

우키요에(浮世繪)라는 용어는 '떠 있는 세상(현실 세계)'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명소(名所)나 아름다운 여인, 기녀, 가부키 배우, 상인들의 모습을 그린 우키요에는 이상향의 풍경을 수묵으로 표현하는 산수화와는 대조적인 세계를 그렸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표현 방식은 17세기 무렵부터 무사에서 상인으로 경제력이 옮겨 간 것을 상징합니다.

패러디라는 말로 종종 설명되는 '미타테(見立)'란, 유머나 풍자를 담아서 어떤 주제를 포착한 것입니다. 미타테 그림(見立繪)에서는 아름다운 여성들이 원래라면 남자로 그려졌을 노동자의 모습으로 표현되거나 역사 속 인물이나 전설상의 인물 또는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사건을 연기하기도 합니다. 에도시대는 문화와 교양이 융성한 시대였기에 사람들은 '미타테'가 나타내는 미묘한 의미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소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키요에는 대량으로 생산하여 유통되었던 목판화와 부유한 주문자들을 위해 한 장씩 제작되었던 육필(肉筆) 우키요에가 있습니다.

▼ **에도 명물 목판화: 우키요에를 만드는 모습** 기타가와 우타마로

에도시대 18세기

아름다운 여성들이 밀그림을 그리거나 목판을 새기는 등 판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화 제작은 남자들이 분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미타테 그림(見立繪)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표

	일본	중국	한반도
BC 1500	~기원전 11000년 전 10000년~ 전 5세기	~기원전 10000년 전 10000년~전 21세기 전 21세기~전 16세기 전 16세기~전 11세기	~기원전 8000년 전 8000년~ 전 1000년/1500년
	구석기시대 조몬시대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하 상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1000		전 11세기~전 8세기 전 8세기~전 5세기	전 1000년/1500년~ 전 4세기
500		서주 춘추시대	청동기시대
AD 1	전 5세기~ 후 3세기	전 5세기~전 3세기 전 221년~전 206년 전 206년~후 8년 8년~ 23년 25년~ 220년	전 4세기~전 1세기 1세기~ 3세기
100	야요이시대	전국시대 진 전한 신 후한	초기철기시대 원삼국시대
200			
300	3세기~ 7세기	221년~ 280년 265년~ 316년 317년~ 420년	
400	고훈시대	삼국시대 서진 동진	4세기~ 668년
500		420년~ 589년	삼국시대
600	593년~ 710년	581년~ 618년 618년~ 907년	
700	아스카시대	수 당	676년~ 935년
800	710년~ 794년 794년~ 1192년		통일신라
900	나라시대 헤이안시대		
1000		907년~ 960년 916년~ 1125년 960년~ 1127년	918년~ 1392년
1100		1038년~ 1227년	고려
1200	1192년~ 1333년	1115년~ 1234년 1127년~ 1279년	
1300	가마쿠라시대	1038년~ 1227년	
1400	1333년~ 1392년 1392년~ 1573년	1271년~ 1368년 1368년~ 1644년	1392년~ 1910년
1500	난보쿠초시대 무로마치시대	원 명	조선
1600	1573년~ 1603년		
1700	아즈치모모야마시대 에도시대	1644년~ 1911년	
1800		청	
1900	1868년~ 1912년		
2000	메이지시대 다이쇼시대 쇼와시대 헤이세이시대 2019년~		
	레이와시대		

도쿄국립박물관
 〒110-8712 도쿄도 다이토구 우에노공원 13-9
 전화: 03-3822-1111(대표)
<http://www.tnm.jp/>
 2023.1 ©TOKYO NATIONAL MUSEUM
 번역: 정상연 (도쿄국립박물관 국제교류실)
 표지 사진: 후지산 36경: 개풍왜청, 가쓰시카 호쿠사이, 에도시대 19세기

